



부부관계도 배운다?



| 정현숙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사람들은 전공이 무엇인지 묻곤 한다.

부부관계가 전공이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한가지는 부부관계라는 말을 성생활과 동일시하고 부부관계란 말 자체에 뭔가 은밀한 것을 떠올리며 낄낄거리며 웃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반응은 그런 것도 대학에서 가르치냐고 되레 반문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사회가 부부관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 사람들이 성(性, sex)이외의 부부관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부관계 등 가족관계에서의 특성과 기술은 배우지 않아도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결혼을 통해 부부관계가 생겨나고, 자녀들을 낳고 부모자녀관계가 더해지면서 점차 가족의 모습은 다양해져간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핵심은 부부관계이며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 또한 부부관계이다. 과거에는 검은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부부가 함께 오래 사는 것이 훌륭한 부부였지만, 요즘의 부부는 그저 무덤덤하게 오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법적인 약속을 통해 개인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법적인 약속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며, 부부로서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부부는 성장을 이루는 긴 여정에 있어서 동반자이다.



적인 성장을 이루며, 부부로서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부는 이러한 성장을 이루는 긴 여정에 있어서 동반자이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은퇴 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생의 동반자인 부부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하며 새로운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 70년 이상을 같이 살 동반자의 자질은 무엇이며,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부부간에 어떤 대화 기술이 필요한지,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올바른 부부관계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올바른 부모-자녀관계를 이루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가?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사랑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질적인 삶인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 이혼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아, 부부관계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하고 탄식하기에는 그 댓가가 너무나 크다. 재혼의 이혼율이

초혼의 이혼율보다 더 높다는 통계를 보면 이혼의 경험도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과 같은 너무나 사적인 내용을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구태여 배워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더 나은 부부관계를 위해 교육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혹은 가끔 강의하러 가면 좀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쓸데없는 소양교육을 하는 나 같은 여자들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기도 한다. 이런 분들이 부부관계는 항아리와 같아서 기술적으로 잘 다루어야할 뿐만 아니라 한번 깨지면 다루는데 처음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인생의 과정이다. 앞으로 1년 동안 독자들과 “부부의 성” 지면을 통해 개인과 부부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家和萬事成”, “修身齊家治國平天下” 같은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부부관계의 성장은 바로 사회에서의 개인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PPFK